

제 233 호

부활 제 5 주일

1977. 5. 8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강론□



“그대들도 사랑하라”

박중신 신부

며칠 전의 일입니다. “신부님, 감히 전화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신자입니다. 지금 저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제 혼자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부님께 달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분과 저는 24시간만 잠았다가 만나서 얘기를 나눈 다음 자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괴로운 세상입니다.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말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분들 중에는 세상은 최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인연을 끊고 문을 굳게 닫고 조용히 하느님과 대화만을 즐기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자신들은 죄악에 참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도 서로 헐뜯고, 교회가 안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하고, 사랑하려는 사람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을 선사할 수 없듯이 희망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자들이여! 세상이 희망을 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생기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교회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자는 이미 신자가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을 요구합니다. 생기 넘치는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활발하게 살아 있을 때 세상에 생명과 기쁨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악이 판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고 결점을 찾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정읍 천주교회 주임신부)

— 도시 본당과 시골 본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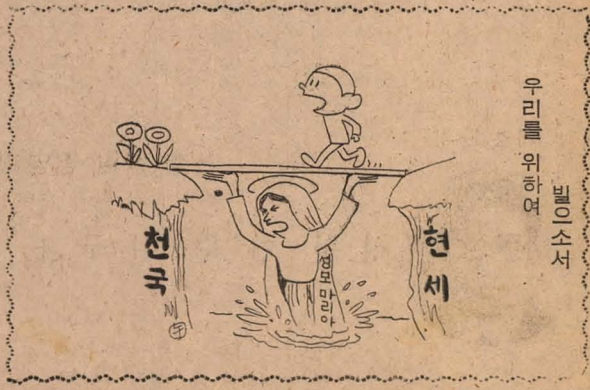
과부의 현금

1976년말 전주교구 신자 총수는 60,953명이다. 74명의 사제와 85명의 수도자를 합치면 61,112명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교구밖에 나가 있는 분도 많다. 그러나 6만1천명의 교구내 가톨릭 신자가 지난 사순절 동안에 교구에서 벌인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위해 100원씩만 모아 준다면 6백1십여만이라는 거액이 모아진다. 그런데 34개본당 가운데 아직 성금이 집계되지 아니한 4개 본당을 제외하고 3백9십여 만원이 모아졌다. 교구에서 처음 벌인 사업치고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문제는 있다. 보편적으로 도시 본당의 1인 평균액이 100원을 넘지 못하는 본당이 많은가 하면, 시골의 어려운 본당은 평균액이 100원을 넘는 본당이 많이 있다. 개인별 최고액도 시골 본당에 계시는 분이였다. 사제는 시골 신자들에게만 필요한가? 본당 운영은 도시에서만 문제가 되는 일인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신자들이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신자들의 경제사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겠지만, 교육의 부족 곧 계몽의 부족이 큰 원인일 것이다. 이 교육에는 누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문제만을 던져 본다.

「어느날 예수께서는 부자들이 와서 현금회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계셨는데 마침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작은 동전 두닢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저 사람들은 넉넉한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을 전부 바친 것이다.”」 (루카 21. 1-4)

숲정이 산책



우리를 위하여
별이소서



3.1 사건 유죄 판결에 임한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 성명

지난 해 3월 1일에 이 명동 대성당에서 “3·1절 기념미사”를 거행하고 “민주 구축선언문”을 발표한 신·구 기독교의 성직자와 크리스찬 인사들이 뒤이어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성직자와 신자를 합하여 18명이 구속될 때 이들에게 가해진 혐의는 “정부 전복 음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당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곧 시국 기도회를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하여, 3·1사건 구속자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었던 것처럼 혐의가 가해진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유감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그 직후 이 구속자들에게서 “정부 전복 음모”라는 혐의는 제거되고 “사실 왜곡”이라는 혐의가 가해졌습니다. 즉 한국의 오늘의 정치질서에 대해 언급하고 민족적 운명의 미래를 전망한 선언 속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 죄목이 되었습니다.

구속된 이들의 신분을 보면 신부, 목사, 전직 대통령,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대학교수 등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급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국가의 현실에 대해 판단하고 언급한 일이 구속까지 당해야 하고, 일 년 동안 재판받을 받아야 하고, 이 해 3월 22일에는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3년 이하의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언도받아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민총화가 강조되고 있는 나라에서 이번 3·1사건의 대법원 언도가 마땅하고 떳떳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극히 유감되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의평화위원회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직속기구입니다. 주교회의가 75년 2월 28일에 발표한 메시지에서 “부정부패, 사회 부조리, 인권 유린들을 고발하는 교

회의 발언권은 계속 행사되어야 하고, 교회는 정치질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이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 주교회의 안에 정의평화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에 따라, 우리 정의평화 위원회는 그동안 3·1사건 피고들을 위해 변호인단을 선정했고, 여러 차례 기도회도 개최하여 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과 피고들의 증거 신청이 무더기로 가각되는 바람에 지난해 8월 3일에는 변호인 27명 전원이 변론임무를 사퇴하는 등 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법원의 최후 판결에 일말의 기대를 걸면서 인내와 신앙으로써 기도회를 열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3월 22일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국민 대중과 마찬가지로 근년의 우리 국가 현실 안에서 경제적 시국 통제가 완화되고 대화와 화해를 통한 민주역량 육성이 구현되기를 갈망하고 기대하였으나, 다시 실망의 회담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헬싱키 선언”이래 국제적으로 인권문제는 내정간섭의 차원을 넘어서 개선되어야 할 인류 공동의 현실적 책무가 되어있다고 바오로 6세 교황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3·1사건이 중형으로 매듭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이익에 커다란 손상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계기에 우리 정의평화 위원회는 인권과 정치질서에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교회의 입장에 따라, 정의와 평화를 위한 발언권을 계속 행사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성서의 말씀에 따라 자연법적 질서와 정의를 끝내 우리 사회의 현실적 제도로 정착시키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면에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이 열이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간 전국 각지, 심지어 서독의 교형 자매들까지 저희 익산 나환자촌 공소 전립을 위해서 4백3만5백3십9원이나 도와 주셔서 그저 감사하거만 합니다. 특히 멀리 서독에서 6십4만5백4원이나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구내의 교형 자매들께서 도와주신 액수는 1백6십9만1천9백5원입니다.

공사는 75년 성탄절에 완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가 4백4십3만8천3백3십9원으로, 현재 공사비만 4십만 7천8백원이 지불되지 못했습니다. 4십만여원에 대한 이자도 드려야 할텐데...

1년 이상이나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다 보니, 그간 공소 전립을 위해 애써 주시던 신축위원인 삼례분당 사도회 임원 몇 분은 법적인 재제를 받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낮 두껍게 다시 두손 모아 봅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독지가 형제 자매들께서는 숲정이 편집실로 연락해 주세요.

1977년 5월 익산 나환자촌 공소 교우 일동 아뢰

□개업 안내□



건축 상담 환영!!!

설계·감리·허가 수속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금구<연>)

☆전주 가톨릭 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3-1449

☆새로나왔다! 삼화운수 보일러 ☆

☆특징 - 주물로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함

- 열효 100% 효력, 99% A.L인코트

-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복 총 판매점

부 활 상 회

대표 주원철(야고버)

□각 시군대리점 구함<각 가정에도 저렴으로 직접 시공>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2면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믿는 이들이며, 이 나라의 만여명 신열 순교자들의 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3·1사건 투옥자들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바라보면서 다음의 두가지 구체적 문제가 해결되고 보장되기를 주장합니다.

그 첫째는 가톨릭 신자이며 시인인 김지하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있는 일이 공명정대하게 판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지하 시인의 구속과 인권문제가 바로 3·1사건 촉발의 한 동기가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문정현 신부가 지금도 투옥되어 있습니다. 김지하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가톨릭 신자임을 보증하는 진정서가 최근에도 서구의 각 나라 가톨릭 정의평화 위원회로부터 한국 법무장관과 우리 정의평화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로서도 김지하 피고에게 변호인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 재판의 조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금년 3·1절 기도회 때 이 기도회에 참석하려던 전국 각 교구 천주교 사제들이 사복경찰과 기관원들에 의해 연금, 연행, 그밖의 방법으로 참석을 저지당한 사실의 중대성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사태에 관하여 우리 정의평화 위원회는 이미 내무부, 법무부, 중앙정보부에 항의문을 보냈는 바, 성당에서 거행하는 기도회에 성직자가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종교탄압의 사례로서 묵과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와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정의를 위한 우리 교회의 의분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고 인정하는 국가권력은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즉 그 “공권력은 기계적이거나 폭군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자유와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도덕적 힘’ 이어야 하며, 그 힘은 모든 사람과 공동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보다 완전하게 자기완성을 성취하는 공동선에 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사목헌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시국관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르치는데로 따를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속적인 성과와 손익의 관념이 개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오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1977, 3, 28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

요십이 (197) 그림:



이신경외과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내구집)

전화 ㉠-9793

원장 이종두 (헬리코)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이전 안내□

성원약국

성원표(스페라도)

□ 태평동 전매청 좌측

200m지점

전화 ㉠ 5780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팅)

전화 ㉠ 1665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 4577)

신자들의 건강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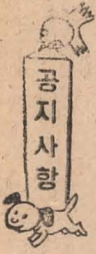
성심당한약방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북부배차장 옆

전화 ㉠ 4544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사제양성 후원사업 현황 보고를 위해 숲정이 간지를 발행합니다.
 - ① 간지 제1면... 각 본당별 현황
 - ② 간지 제2-4면... 사순절 성금을 내주신 분의 개인별 명단을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우선 실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드립니다.
2. 성소 주일 행사 참여 내용
 - ① 가톨릭 센터에서 있었던 강연회와 미사에 250명이 넘게 참여했음. 본당별로 파악된 숫자는 전주시의외 157명(남원 47명, 둔율동 33, 황등 19, 함열 15, 용안 12, 삼례 11, 팔마 11, 대야 4, 상관 2, 무주 1, 인실 1, 창인동 1), 전주 시내 56명(서학동 31, 중앙 10, 전동 10, 덕진 3, 노송동 2명)임,
 - ② 전주 시내 주일학교 아동들의 성체 수여원 방문은 474명(중앙 15명, 전동 120, 노송동 83, 서학동 56, 덕진 35, 복자 30명)임
3. 혼인 문제 상담일(9일 <월>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 안내실)
4. 가톨릭 약사회 상임위원회(13일 <금> 오전 10시, 교구청 사목국 내)
 - 염기봉 신부님 주소 : 500, 광주시 월산2동 136, 가톨릭 군인회관 내
5. 문화방송 안내 <별이 빛나는 밤에> 매일 밤 11,25~30분. 왕 수해 신부 방송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용복
 ③3874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꾸리아 월례회 : 8일 오후 2시, 강당
2. 경로다과회 : 9일 <월> 오후 2시, 강당(만 65세이상 남녀)
3. 사도회 야유회 : 10일 <화> 오전 7시반 출발, 여수 오동도
4. 미사예물 접수 : 사무실에서
5. 불우 이웃돕기 현모모집 : 사무실에서
6. 건진성사 받으실 분 15일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람
7. 혼인성사 받으실 분은 1개월전에 본당신부와 면담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94,885원
 □ 감사헌금 : 5,000원(오채용(마르코))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건진성사 받으실분은 8일 까지 접수하세요(교리-9일부터 14일까지, 성사-11일~13일(3일간), 오후 3-6시)
 ※건진 예비자는 15일 <일>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모시고 나오세요
2. 환자 봉성체 : 10일 <화> 오후
3. 본당 회의실 완공 추진위원회 결성 : 본당 내 미완공 건물을 완공코저 본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5. 회의실 완공기금 감사합니다(익명, 2천원)

□ 축결 혼!
 김동규(말구)군, 이점득(엔리사벳)양 14일 정오

□ 지난주 봉헌금 : 42,0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신축위원 모임 : 미사후
 2. 춘계 야외미사 : 22일 9시까지 본당에 집합
 3. 사도회, 청년회 월례회 : 미사후
 4. 새 성당이 무사히 완공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5. 신축헌금 : 김정배(15만원), 통계 6,015,500원
- 지난주 봉헌금 : 37,75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신자들의 기도 (15일) : 박인식, 김낙완, 이호재, 강

기연, 이제노배파

2. 성모의 밤 : 14일 오후 7시반 각 신·심단체별로 기도회환, 초의 봉헌준비 바랍니다
 3. L.M 옥의행사, 본당소풍 : 22일 공식미사 후 (도시락, 지참)
 4. 앰프시설, 제병, 포도주, 제대초 봉헌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교무금을 속히 완납합니다
- 건진성사 받으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 축결혼! 최규익군, 신채영(에밀리아)양
 □ 지난주 봉헌금 : 42,18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선교주일입니다 진행중인 목사회에 더욱 분발하십시오
 2. 어버이 은혜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3. 소풍, 야외미사, L.M 옥의행사 : 22일(예수승천 대축일) 남고산, 모든 교우님들 점심 지참하시고 참석하세요(승천 대축일에 10시미사는 남고산에서 12시미사로 대체합니다)
 3. 예비자 교리 : 29일(성심장님 대축일)에 영세 받으실 분은 11일 저녁 8시부터 매일밤 교리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8,075원 감사합니다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소비조합(각종 일용품 일절)신설 : 누갈다 부녀회에서 성당 신축헌금 마련을 위해서 신설하였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 애령회 기금조달에 협조해 주세요
 3. 수녀님께서 가정방문 중입니다 협조바랍니다
 4. 야외용 앰프 기타일절 회사 감사합니다. 스타사장 장남수(바오로)께서, 누갈다유치원에
 5. 본당 사도회장님 4남 전창호(바오로)군, 오늘 정오 가톨릭센터에서 혼배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7,662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유성준

1. 자모회 월례회
 2. 새 성당 건립과 성가정 지향으로 목주기도 10만번 합시다.
 3. 성모상 가정 심방 : 풍남동
 4. 성가정회 : 월요일 오후 2시
 5. 장우회 월례회
 6. 예수승천 야외미사 : 22일 <일> 수박동 예정
- 지난주 봉헌금 : 105,060원